

애꽃은 딸또래 죽음길동반 충격

우울증·병적 자녀애 등 겹쳐 엉뚱한 희생양 선택

오철우 기자

우울증을 앓아오던 30대 주부의 충격적인 집단 동반자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자들과 사회심리학자들은 숨진 김숙희(32)씨가 정신병적 심리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향한 무모한 애정과 이웃에 대한 극도의 이기심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한 우울증 환자가 자신의 자녀를 동반자살에 끌어들이는 일은 이미 적잖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울증 환자에게 비친 비판

적인 세상에 자녀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식의 '빚나간 애정'이나 '엉뚱한 죄책감'이 동반자살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신의 딸 뿐만 아니라 애꽃은 같은 또래 이웃의 딸 2명까지 동반자살에 끌어들이고 그 행태도 충격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런 일반적인 분석을 뛰어넘고 있다.

신경정신학자들은 이런 심리상태에 대해 숨진 김씨가 먼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자살을 선택한

뒤 딸(6)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자신들의 죽음만은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딸의 또래인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형식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기 모녀만의 불행과 죽음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던 극단적인 이기심, 딸의 불행에 대한 죄책감이 겹쳐 2명의 다른 아이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건국대 의대 박청산 교수는 "김씨의 개인사를 더 살펴봐야 자세한 경위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김씨는 망상과 환각까지 겹친 '정신병적 우울증' 단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딸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죄책감이 이런 참혹한 자살을 빚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회심리학자 장병립(전 서울대 교수)씨도 "폐결핵 말기인 술집 마담이 아무개 관사를 방갈로로 피어내 계획된 동반자살을 했던 60년대의 유명한 사건처럼 우울증 환자가 동반자살을 결심할 때는 자신만의 불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을 발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김씨는 이날 이웃집 딸 이명은(6)양을 자신의 딸 생일잔치에 초대하는 것처럼 속여 데리고 나갔고, 자살에 쓴 넥타이끈까지 준비해가는 등 치밀한 동반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30대 우울증 환자의 정신병적 충동이 아니라 사회적 병리에서 비롯됐다는 진단도 있다. 소설가 김성동(49)씨는 "자살 순간까지도 자신만의 불행과 타인의 행복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질투심이 우리 사회에서도 병적인 현상으로 돌출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더욱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난 뒤 도달한 병든 사회의 한 증표를 바라보는 느낌이라서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럴수가...”두 어린이 어머니들 영정 안고 혼절

○...7일 오후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한 민혜남(7), 이명은(6)양의 빈소가 마련된 안양시 중앙병원에는 두 어린이의 어머니가 모두 실신해, 비보를 듣고 달려온 가족과 이웃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명은양의 어머니 김진수(32)씨는 영안실에 도착하자마자 유치원 입학식 때 사각모를 쓰고 찍은 깜찍한 모습이 담긴 딸의 영정을 부여안고 오열하다 혼절해 집으로 옮겨졌으며, 혜남양의 어머니 김경숙(34)씨도 실신해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갔다.

명은양의 아버지 이정렬(33)씨도 줄곧 넋이 나간 듯 말없이 술잔만 들이켜 주변 사람들을 안타

깝게 했다. 이씨를 위로하던 가족과 이웃들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온 김씨를 내버려뒀을 김씨 가족을 원망했다.

○...김숙희씨의 주검이 안치된 안양 한성병원 영안실에서는 김씨가 아무 죄 없는 어린이들을 숨지게 했다는 사실 때문인지 영정은 물론 촛불과 향도 켜지 않은 채 김씨의 동서 2명만이 외롭게 빈소를 지켰다.

○...이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김씨는 89년 갑상선 이상으로 병마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나타낸 것을 빼고는 평온한 가정을 꾸

려온 것으로 친척과 이웃 주민들은 전했다.

남편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 7중기 포클레인 기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1백20만원으로 생활해온 김씨 가족은 결혼 뒤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다 지난해 3월 2천5백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주공아파트로 이사했으나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이들이 다투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울증이 심해진 김씨가 자살을 결심한 뒤 남편과 함께 지난 1일부터 5일 동안 충남 연기군 천정 등지를 돌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홍용덕 권복기 이종규 기자